덕수궁 출입패

의장용 모자

이왕직박물관 도자기 사진첩

의장용 모자·사진첩·분청사기 등

영친왕 유품·유물 첫 공개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前북구의장 정상진씨 3년간 日 현지서 수집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의민태자)로 일본에 볼모로 갔던 영친왕(1897~1970년)의 의장용 모자와 휘장 등 유품과 관련자료 4점이 첫 공개됐다.

정상진 광주시전통도자기연구회장(전 광주 북구의장)은 5일 지난 3년동안 일본 현지를 찾아다니며 수집한 영친왕의 덕수궁 출입패, 이왕직박물관에 있던 도자기를 담은 사진첩 등의 유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유품은 영친왕이 친필로 이름을 적은 의장용 모자와 휘장, 고종의 임시 거처였던 덕수궁의 출입을 위해 발급한 출입패(1915년 제작)이다.

또 이왕직박물관 소유 도자기 목록과 사진이 수록된 대형 사진첩과 영친왕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분청사기 도자기 1점도 있다.

유품 모두는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의장용 모자와 휘장은 얇게 가공된 금실과 은실로 섬세하게 장식되었고 의관을 담은 가죽함에는 영친왕의 친필 서명이 뚜렷하다.

또 지금까지 국내에 알려진 바 없는 덕수궁 출입패(출입증 제9호)는 오동나무 소재로 불도장이 찍혀있다.

이왕직박물관 도자기 사진첩 책자(가로 33㎝×세로44㎝)는 101페이지에 이르는 대형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도자기들이 각 페이지마다 사진, 규격과 형태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유물 공개에 함께 한 노기욱(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사는 "이번 공개된 유품은 그 자체로 귀중한 유산이다"며 "특히 도자기 목록 사진첩은 기존 자료와 국립박물관 등에 소장되지 않은 도자기 등 국보급 유물 등이 다수 수록돼 있어 향후 분실 및 도난된 우리 문화재를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된 유물 중에는 광주와 관련된 것도 있다. 길이 50㎝의 분청사기 박지 모란문 표형병의 도자기로 국내에서 동일한 표형병과 문양은 조선시대 초기 관요였던 무등산 분청사기 가마터(충효동 소재)에서 1991년 발굴된 1점이 유일하다.

정씨는 "이번 유물들은 일제강점기에 초대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 일가와 매우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요시다 쇼인 일가에 보관돼온 것으로 지인들과 3년여의 노력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번 유물들이 우리 문화재의 귀환운동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연구 등에 필요한 기관에 기꺼이 기증할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광산구 구도심 활성화 교통 체계부터 바꿔야"

시민들 접근 막는 송정파출소~백제약국 양방통행 필요

광주시 광산구의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송정동을 관통하고 있는'광산로' 일부 구간을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교통체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광산구 송정동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송정파출소~백제약국까지 700m 구간이 일방통행으로 돼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다 보니 이동 인구가 점차 감소, 상권이 몰락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구간 도로를 순환형태의 양방교행이 가능하도록 블록간 접근성을 높여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송정동 일대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구간 도로의 경우 도로폭이 13m 가량으로 양방통행이 가능한데도 일방통행으로 규제하다 보니 차량을 운전해 자칫 잘못 진입하다 보면 빠져 나오기 힘든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13일 송정동 A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출동하고도 일방통행에 따른 주차차량 때문에 진입하지 못한 채 역주행으로 되돌아 재차 진입하다 보니 화재 진압이 지연됐었다.

강승원(70·광산구 송정동)씨는"4년전부터 일방통행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관할 경찰서가 요지부동 이다"라며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부결됐다" 며 "해당 구간은 서광로와 내상로 등 일대 전체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쳐 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전남대 총장 재선거 10월 17일 실시

마지막 직선제로 치러지는 전남대 제19대 총장 선거가 오는 10월 17일 실시된다.

전남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5일 총장 선거와 관련된 주요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8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직·간접 병행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후보선정위원회가 예비선거를 통해 다수의 입지자 중 3명을 압축하면, 교직원 직접 선거를 통해 최종 2인을 선출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한다.

후보 등록은 오는 12~13일이며, 26일 선정위원회가 열린다. 선정위원회는 교수 180명, 직원 20명으로 무작위 추첨해 구성되며 이들이 본선에 나가는 3명의 후보를 선거로 뽑는다.

본선인 직접선거는 전임이상 교원과 직원, 학생들이 참여하며 선거권 비중은 각 100%와 11%, 1.1%다.

3명의 정식 후보 등록은 다음달 3~4일이며, 2주간 공식 선거운동을 거쳐 17일 본선 투표가 진행된다.

전남대는 올 초 진행됐던 총장 선출과정에서 다득표 1·2위후보가 검찰에 의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번에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전남대는 20대 총장선거부터는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형식을 도입한 새로운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뜸 06시 09분 / 해짐 18시 52분
달뜸 21시 53분 / 달짐 11시 21분

감기 조심

대체로 맑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광 주	맑음	16/29℃
목 포	맑음	17/27℃
여 수	맑음	20/28℃
나 주	맑음	14/30℃
완 도	맑음	17/29℃
구 례	맑음	15/30℃
강 진	맑음	16/29℃
해 남	맑음	15/29℃
장 흥	맑음	15/29℃
순 천	맑음	14/28℃
영 광	맑음	15/28℃
진 도	맑음	16/28℃
전 주	맑음	15/28℃
군 산	맑음	15/27℃
남 원	맑음	13/29℃
흑산도	맑음	18/2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1.0~1.5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경고	높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밀물	썰물
목포	05:10 17:50	10:23 22:52
여수	12:02 23:49	05:34 17:5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최저/최고	17/29	21/27	21/28	22/28	21/28	21/29

광주 남구·서구·광산구 불법학원 집중 단속

광주 서부지역(남구·서구·광산구)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학원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돼 학원 등이 집중감시를 받게됐다. 지난 2010년부터 지정된 전국 학원 중점관리 구역에 광주지역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서부교육청 관할지역인 남구·서구·광산구가 최근 교과부의 전국 학원 중점관리구역에 편입됐다.

교과부와 시교육청은 향후 2년 동안 이 지역을 대상으로 불·탈법 학원 운영 행위 등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을 벌인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2013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이 종료되는 2013년 1월31일까지 광주 서부지역을 포함한 사설 학원들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 행위는 ▲수시 대비 고액 논술특강 ▲주말을 이용한 호텔 및 오피스텔 등에서 단기속성반 운영 ▲고액 특별과외 교습 ▲미신고 개인과외 ▲불·편법 입시컨설팅 등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